

땡그렁~ 소리는 골퍼와 그린의

골프 코스는 여성이라 했고 골프는 곧 섹스라고 했다. 특히 그린은 여성의 심볼이어서 모든 홀의 그린에 두 퍼팅이라고 했고 첫 퍼팅의 의미는 애무라고 했다. 애무에 정성이 담기면 홀 컵은 저절로 열린다. (반대를 생각해 보자. 3퍼팅 4퍼팅 할수록 홀 컵은 닫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반드시 그린에서만 애무와 홀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골프 유머사전에 의하면 어프로치도 애무에 포함된다. 어쩌면 파4 홀에서 제주도나 강원도 온 시키고 3퍼팅 4퍼팅하면서 질퍽거리는 것보다는 쓰러운 원 퍼팅의 원숙한 기교가 여자를 더 잘 다루는 골퍼일 수 있다. 어프로치로 하는 애무가 더 터프하기 때문이다.

터프를 tough로 읽으면 거칠고 맹렬하고 거센 등의 풀이가 되지만, turf로 읽으면 골프 용어가 된다. 뒹땅을 쳐서 잔디를 움푹 파이게 하는 미스샷이 turf다. 야성미라고 할까, 강인하고 완벽이 센 사람을 일컫는 터프가이(tough guy)는 골프장에서의 무법자 터프가이(turf guy)라는 속어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린 위에서의 간

절함이 담긴 퍼팅이 부드러운 애무라면, 그린 주변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어프로치 애무는 스킬도 있고 무인(武人)같은 호전성도 있어 홀 컵은 더 쉽게 열릴 수 있다.

골프공을 홀 컵에 떨어 넣는 행위는 무엇에 비유될까. 그것은 골프의 오르가즘으로 골퍼가 정액을 쏟아내는 순간이다. 이때 그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땡그렁~”이다. 다시 들어보자, 땡그렁~,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될 때 울리는 소리와도 같다. 골프의 진정한 쾌감은 절정에서 울리는 그 소리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땡그렁~ 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어처구니없게도 동반자의 ‘OK’가 그것을 앗아간다. OK는 한국에만 있지 세계 어디에도 없다. OK가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가? 만약 당신이 섹스의 절정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려 할 때 옆에서 “오케이, 그만”하면 받아들이 수 있겠는가? 원초적 본능을 방해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나라에서만 예외다. 해폰 웃음을 보이며 순순히 공을 (문전에서) 집어든다. 고맙다고



이기윤
(한위드스트리 대표)

하나될 때의 교성

인사도 한다. 체력이 달려서인가?

관점을 달리해서 골퍼는 그렇다 치자. 그린은 이를 용납하겠는가? OK나 주고받는 골프는 어떤 그린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치열한 골프도, 그린(여성)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흑자는 말한다. ‘골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그러나 왜 골프장을 위해서 골퍼가 절정의 쾌감을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흔히 골프장마다 내장객의 매너를 강조하는데, 골프장 운영은 저희 마음대로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경영자의 매너는 없다. 마치 18명의 미녀를-혹은 27이나 36명의 미녀를-거느리고 내장객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집장촌 촌장 같은 행태를 보인다. 그들은 홀 컵도 프라스틱으로(즉, 가짜로) 바꿔버렸다. 골프 코스 여기저기서 땡그렁~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에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그런 마음이라면 애초에 집장촌(골프장)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의 골프는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자랐다. 일부 일처제 나라에서 남몰래 첩 질이나 하는 것처럼 음

지에서 키워졌다. 골프가 다소 대중화되었다지만 아직도 골프장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치고 “나 여기 골프장이야.”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은 열에 한둘 있을까 말까다. 숨어서 못된 짓 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땡그렁~ 소리를 양보하면서도 해픈 웃음을 짓는 것일까?

골프가 섹스와 같은 것이요, 골프 코스를 여성으로 보면 골프의 발상지는 어디라도 될 수 있다. 섹스를 연상하게 하는 놀이는 인간이 사는 터전이라면 어디서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코트랜드나 네덜란드의 묵동만 그런 놀이를 했던 것이 아니다. 동양에서도 또 기원 전 로마에서도 그런 놀이는 얼마든지 있었다. 다만 스코틀랜드를 그 발상지로 보게 된 것은, 골프의 매너, 에티켓이 그곳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매너는 무엇인가. 에티켓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성이다. 결국 골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매너를 다듬는 놀이가 되면서紳사들의 관심 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이다.